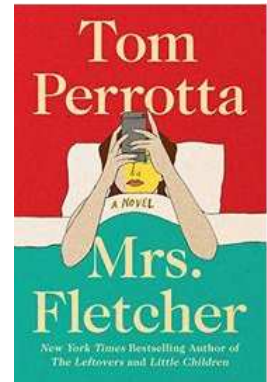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MRS. FLETCHER
가제 : 미세스 플레처
저자 : Tom Perrotta
출판사: Scribner Book Company
발행일: 2017년 8월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성장소설



* 초판 **20만** 부 인쇄 예정.

* “툼 페로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이자 현대 미국의 모습을 가감 없이 기록하는 사람. 미국의 체호프.” – 「뉴욕타임스 북 리뷰」

* “따뜻한 감성과 풍자, 이 드문 조합이 가능한 작가다.” – 「시애틀 타임스」

“내게도 이런 면이 있었다니” 새삼스럽게 깨닫고 혼자 놀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익숙한 일, 늘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낯선 것을 시도할 때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보고 보통 그런 놀라움을 느낀다.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불안을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소설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엄마와 아들을 통해 그런 깨달음 혹은 놀라움의 순간을 이야기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뛰어넘는 두 모자의 사연 속에는 사랑과 섹스, 대인관계, 도덕에 관한 사람들과 사회의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담겨 있다.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 오붓하게 지내던 이브 플레처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40대 중반을 갓 넘어선 이브는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대표직도 맡고 있고 삶에 큰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유일한 버팀목이던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떠나는 전날까지 술이나 퍼 마시고 숙취에 해롱거리는 아들 브렌든을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이브는 텅 빈 집에서 채울 길 없는 외로움을 느낀다. 이제 이 적적함을 어떻게 달래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밤,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알 수 없는 발신자가 야밤에 보낸 문자는 내용도 기가 막혔다. “당신은 정말 내 스타일, 섹시한 아줌마예요!” 평소 브렌든에게 집요하리만치 잔소리하고 훈계하면서도 어리숙한 면이 있는 이브는 아무에게나 보낸 것

이 뻔한 이 당혹스러운 문자에도 진지하게 반응한다. 구글 창을 열고 이것저것 검색하던 이브는 자기 또래 중년 여성들이 가득한 포르노 사이트를 발견하고 기겁을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큰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이 우연한 사건은 이브의 삶을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한다. 낮에는 어엿한 대표님으로, 저녁에는 대학에서 트랜스젠더 여교수가 가르치는 ‘성별과 사회’라는 수업을 들으며 챗바퀴 돌 듯 살아온 이브는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새로운 성적 매력을 깨닫는다.

한편, 몸 만들고 파티하고 술 마시는 일이 일상 생활인 브렌든은 대학에 가면 얼마나 더 신나는 유흥이 기다릴까 부푼 기대를 안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몸매 자랑을 하려고 셔츠도 안 입은 자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람들의 호응을 신경 쓰며 살아온 그는 여자를 줄줄이 바꿔가며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던 예상과 달리 여학생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험한 말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혐오스러워하는 반응들을 보고 놀란다. 그러다 앰버라는 한 여학생을 통해 어쩌다 ‘자폐증 인식제고 네트워크’라는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서 뜻밖의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생긴 의붓동생이 자폐스펙트럼 단계라, 그 행사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어 경찰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도 참가한 브렌든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와 특권인식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지 인지하고 당혹스러워한다.

두 사람은 이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까? 악인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회 곳곳에 폭탄처럼 자리한 모순과 인간의 결함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인지 날카로운 울림을 선사한다. 나이와 상관 없이 인간에게 끝없는 숙제와도 같은 정체성 탐구의 과정이 두 매력적인 인물을 통해 위트 있게 펼쳐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톰 페로타(Tom Perrotta)는 HBO 드라마 시리즈로 각색된 『The Leftovers』를 비롯해 『Election』, 『Little Children』 등 여덟 편의 소설을 발표한 베스트셀러 소설가, 각본가다. 예일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시라쿠스 대학교에서 글쓰기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제목 : EVERYTHING MUST GO

가제 : 영원한 건 없어

저자 : Jenny Fran Davis

출판사: Wednesday Books

발행일: 2017년 10월 3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성장 소설



- *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사건들, 생생한 목소리가 페이지마다 가득하다.” - 「**NEVER, ALWAYS, SOMETIMES**」의 작가 아디 올세드
- * “주인공 플로라는 영리하고 재미있고 (좋은 쪽으로) 자기 비하가 심하면서도 결단력 있고 패션 감각이 뛰어난 페미니스트다. 로맨스를 갈구하는 여성, 지성과 해묵은 것들,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플로라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 「**UNPLUGGED**」, 「**THE BODY MARKET**」의 작가 돈나 프리에타

결정적인 사건은 늘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 고등학생이던 플로라가 8월의 어느 오후,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교에서 엘리자와 맞닥뜨린 그 날이 이후 플로라의 인생 경로를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건물 8층에 있던 암실에 무언가를 찾으러 들어간 플로라는 낯선 대학생과 마주쳤다. 자신을 엘리자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학교가 야심 차게 준비한 ‘대학생 일대일 과외 시범사업’ 참가자로 뽑힌 대학생이었다. 역사 전공자들을 몇 명 뽑아서 학교 수업에 보조 교사로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 취미로 사진에 폭 빠진 엘리자는 그 날 자신이 찍은 필름을 현상하러 그 암실에 있다가 플로라와 만난 것이다. 그 날부터 엘리자는 패션 센스가 남다른 플로라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었던 플로라는 그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긴다.

멋스러운 그레이스 켈리 스타일의 원피스에 재키 케네디 스타일의 선글라스, 프랑스어 동사 활용을 원어민 못지 않게 구사하는 언어 실력, 오드리 헵번 영화를 가장 좋아하고 유명 프렌치 베이커리에서 갓 구워낸 패스트리를 사랑하는 독특한 매력의 플로라에게 엘리자는 묘한 매력을 느꼈다. 학교가 정해놓은 갑갑한 틀을 자신만의 매력적인 스타일로 거부해온 플로라에게 그는 자신의 사진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부탁하고, 흔쾌히 응한 플로라는 ‘미스 툴립’, 일명 ‘미스 T’라는 가명으로 엘리자가 운영하는 사진 블로그에 빈티지 패션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엘리자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가던 플로라는 그가 허드슨 밸리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사진 공부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한다. 늘 누리던 맨해튼 엘리트 계층의 우아하고 세련된 삶을 버리고, 히피와 힙합의 동네로 과감히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알쏭달쏭한 엘리자의 마음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결심은 생각보다 큰 대가로 다가왔다.

낯선 곳에 엘리자 하나만 보고 볼썽 와버린 플로라인데, 그는 끝내 그 학교에 모습을 나타내

지 않았다. 전문적인 사진 공부를 해야했다면서 느닷없이 콜롬비아 대학교로 가버린 것이다. 학기는 이미 시작되고, 플로라는 찢어진 청바지와 온 몸에 문신은 물론 온갖 공격적인 액세서리는 다 휘두른 학생들 틈에 홀로 버려진 괴상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고등학교 때처럼 그저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기에는 주변 환경이나 학생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에서, 플로라는 세상에 갇혀난 신생아처럼 아주 천천히 전혀 몰랐던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갈수록 뜸해지는 엘리자의 연락이나,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플로라를 이용해놓고 효용성이 없어지니 버렸다는 친구들의 날 선 비난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플로라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엘리자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명한 사진작가로 성장하여 1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아 맨해튼에 갤러리까지 딱 하니 열었다. 그 사이 살아온 길도, 살아갈 방향도 전혀 다른 사람들 틈에서 겨우겨우 적응해야 했던 플로라는 좁아 터진 기숙사 방 안에서 그 동안 친구들과 주고 받은 편지들, 엘리자가 소개된 신문 기사와 잡지 사진들을 기념품처럼 모아놓고 지나간 그 몇 년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본다. 케일, 퀴노아, 생 채소로 건강을 챙기고 길게 늘어뜨린 튜닉 차림으로 사는 사람들, 갓 피어난 막시즘의 바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플로라의 시선은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와 별개로 소소한 유쾌함을 안겨준다.

어이없게 끝나버린 젊은 날의 풋사랑과 성장통을 겪으며 새롭게 알게 되는 세상의 이야기를 개성 넘치는 주인공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낸 이야기다.

<저자 소개>

제니 프랜 데이비스(Jenny Fran Davis)는 맨해튼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북부 웨이커교도 공동체에서 넉 달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다. 이후 대학에 들어가 현재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제목 : THE SIMILARS

가제 : 시밀러

저자 : Rebecca Kurzweil

출판사: 추후 확정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SF



*** CBS 드라마 <Guiding Light> 작가로 에미상을 수상한 작가의 SF 신작**

*** 복제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기숙학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와 숨겨진 진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여름 방학 내내 떠나 있던 학교로 돌아가는 에멀라인은 곧 얼마나 떠들썩하고 이상한 분위기와 마주하게 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에멀라인의 학교는 신문이며 TV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열여섯 살의 복제인간들, 사립 기숙학교 학생이 되다”,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다: 자녀의 DNA를 가진 존재가 등장한다면?”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다크우드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여섯 명의 DNA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진 복제인간, 일명 ‘시밀러’ 여섯 명이 배움의 ‘기회’를 부여 받아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학생들은 물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사실 에멀라인은 예전처럼 이 거대한 뉴스에 집중할 수 없었다. 방학을 맞아 학교를 떠났던 5월과 다시 돌아가는 9월의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심드렁해질 수밖에 없었던 훨씬 더 거대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에멀라인을 집어 삼켰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짝, 50년 아니 그 이상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자고 말로 눈빛으로 수없이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 올리버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부터 에멀라인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았다. 무엇도, 그 어떤 일도 올리버가 곁에서 사라진 것만큼 에멀라인의 마음을 흐트러트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크우드 아카데미에는 에멀라인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정에 들어서자마자 에멀라인은 부통령을 지낸 아빠를 둔 덕분에 전교생은 물론 교장 선생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매디슨이 단짝과 나누는 대화에서 시밀러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가 됐는지 실감했다. 얼마 전 매디슨 자신의 DNA로 만들어진 시밀러를 처음 만났는데, 부모님이 직접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보더니 너무 놀라서 다시는 눈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돈을 쥐어주고 쫓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럼 그 시밀러는 어디로 가냐고 친구가 묻자, 매디슨은 무슨 상관이라며 쏘아붙였다. 그냥 눈 앞에 안 보이면 그만이지, 복제인간 인생까지 신경 써야 하냐는 날 선 대답에 에멀라인은 벌써부터 새 학기가 순탄치 않겠구나 싶었다. 그러나 기숙사에 짐을 풀고 개학 기념식이 열리기 전 잠시 교정을 산책하던 에멀라인은 세 명의 시밀러와 한꺼번에 맞닥뜨렸다. 다 아는 얼굴인데 결코 익숙지 않은 묘한 괴리감, 모습은 영락없이 친구들과 같은데 말투도, 머리 모양도, 옷 입는 스타일은 친구들과 하나도 비슷하지 않은 그 희한한 존재들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올리버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수업이 끝나면 나란히 앉아 깔깔대던 곳을 자신도 모르게 찾아간 에멀라인은 두 여학생과 남학생 한 명이 그 장소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주춤했다. 조금 더 다가가자 얼굴이 눈에 들어오고, 한 명은 올리버 외에 에멀라인의 유일한 친구인 룸메이트, 프루던스와 썩 빼 닮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늘 활기 넘치고 까부는 성격에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돌아다니는 프루던스와 달리 쌍둥이 같은 그 존재는 머리를 곱게 빗어 내리고 깨끗하게 다림질된 옷차림으로 역시나 얼굴과 체형만 닮은 다른 시밀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잠시 동안 에멀라인이 느낀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법으로 금지된 인간 복제를 기어이 실행에 옮긴 주인공은 누구일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시밀러들이 난데없이 일상 생활 속에 평범한 사람들과 섞여 살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일이 가능해졌을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일까? 뜨거운 논란 속에 미국이 아닌 곳에 감추어져 있던 시밀러들이 속속 등장하고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여섯 명이나 되는 시밀러와 마주한 에멀라인은 지난 여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올리버의 복제 인간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진다. 리바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올리버의 시밀러는 프루던스의 시밀러와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올리버일 뿐 절대 에멀라인이 알던, 사랑하던, 아끼던 그 올리버가 아니었다. 소중한 올리버를 복제인간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낀 에멀라인은 리바이를 되도록 멀리 하려고 애쓰지만, 너무 보고 싶었던 올리버의 얼굴을 가진 그에게 어쩔 수 없이 끌리는 감정을 느낀다. 동시에, 다크우드 아카데미와 복제 인간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시밀러들의 정체와 개발의 진짜 목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복제인간이 'DNA 부모'라 할 수 있는 '원본'과 동시에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룬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베카 커즈와일(Rebecca Kurzweil)은 레베카 하노버(Rebecca Hanover)라는 필명으로도 활동 중인 TV 드라마 작가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희곡, 글쓰기를 공부하고 2007년, TV 드라마 <Guiding Light>의 작가로 참여하여 2008년 '데이타임 에미상(Daytime Emmy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A FILTHY BUSINESS

가제 : 추잡한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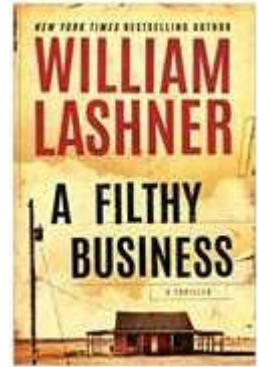
저자 : William Lashner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빅터 칼(Victor Carl)」 시리즈, 에드가 상 후보에 오른 「바텐더(The Barkeep)」의 작가가 선보이는 스릴러 신작

* 사막 한 가운데에서 마주한 기자와 전설의 범죄자, 깊숙이 감춘 두 사람의 속내와 목적

사법 당국은 물론이고 유명한 범죄 조직마다 못 잡아서 안달이 난 범죄자, 인터넷과 수배 명단이 내걸린 게시판마다 잘 생긴 외모와 깜짝 놀랄 범죄 이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주인공을 만나러 한 잡지사 기자가 허허벌판 사막으로 달려간다. 총은 가져가도 되지만 휴대전화나 GPS 같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이상한 지령을 그 남자의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여기자는 먼지 풀풀 날리는 사막 한가운데 도로를 렌터카로 횡단했다.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행선지나 이 일에 대해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무수한 범죄 외에도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했다. 잘 생긴 얼굴과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 남성미 넘치는 모습은 기자가 일하는 잡지 표지에도 실린 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여러모로 관심의 대상인 인물이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으니, 이제 기자로서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기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낯선 곳으로 과감히 향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내리 쏘는 햇살 외에 사람 하나, 심지어 지나가는 다른 자동차 한 대도 없는 외진 목적지에 당도하여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 나니, 기자는 당장이라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픈 충동이 일었다. 황무지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침묵은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은 기자는 먼지가 잔뜩 낀 창문 옆 현관을 열고 남자가 기다리는 바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을 잡으려는 무수한 사람들의 칼과 총, 주먹을 피해 그가 수시로 찾아온다는 장소였다.

환한 바깥 분위기와 달리 심하게 어두운 실내에 모습을 나타낸 주인공은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눈 하나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도 마치 몸과 분리된 고깃덩어리처럼 남자가 질질 끌어서 옆에 가져다 놔야 하는 상태였다. 기자의 얼굴을 스친 실망감을 읽은 남자는 호쾌하게 자신의 이 너저분한 상황을 인정하고는, 지금부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더도 덜도 없는 ‘진실’임을 강조하며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동안 저지른 범죄들, 그 일을 사주한 사람들, 그가 맡은 역할과 범죄 계획, 표적의 처리 과정들이 그렇게 하나 둘 흘러나왔다. 뉴멕시코를 주름 잡던 오토바이 갱단이 길 한쪽 구석에서 쌓인 시체로 발견된 일, 과학계의 백만장자가 무분별

하게 성을 사고파는 난잡한 생활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까발려 멕시코의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사건, 그리고 일명 '솔트레이크 살인마'로 불리며 수많은 목숨을 처단하다가 돌연 사라진 일들이 다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녹음기를 앞에 둔 기자에게 술술 털어놓았다.

마이애미부터 라스베이가스까지, 정해진 구역도, 활동 본거지도 없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얼굴 없는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잔인하고 확실하게 누군가의 생명을 없애던 해결사 필 쿠비악은 오래 전 그만 둔 자신의 활동을 자진해서 어느 기자에게 이야기한다. 성공을 꿈꾸는 저널리스트,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기사에 목마른 그녀를 시름한 맥주와 실재를 날아다니는 파리가 전부인 어느 바에 불러다 놓고 그 기나긴 이야기를 꼬집어내는 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아무리 성공에 애가 타는 상황이지만 여자 혼자 연락할 전화기도 없이 사막 한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기자의 숨겨진 목적은 무엇일까? 각자의 목표를 철저히 감춘 채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남자가 일인칭으로 들려주는 과거의 일들은 수수께끼와 강렬한 호기심, 섹스, 폭력, 겹겹이 쌓이고 단단해진 거짓말과 오만함이 가득하다.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무참히 살인을 저지르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저주인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구현하기 위한 구제 행위인가, 이러한 고민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회한으로 이어지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기자를 불러 과거를 회상하는 이 과정 또한 그의 고민과 관련이 있을까? 기자가 필의 공허하고 텅 빈 두 눈 속에서 집어낸 감정은 들끓던 분노에 대한 후회와 자신이 미워하던 자들을 향한 용서일까, 또 다른 복수를 꿈꾸는 서늘한 다짐일까? 무엇도 확실치 않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인터뷰는 이어지고, 오랫동안 침잠해 있던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저자 소개>

윌리엄 래시너(William Lashner)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빅터 칼(Victor Carl)』 시리즈와 에드가 상(Edgar Award) 결선에 오른 『바텐더(The Barkeep)』, 『Guaranteed Heroes』 등을 쓴 작가이다. 뉴욕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법무부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을 거쳐 전업 작가로 데뷔했다.

NON- FICTION

제목 : THROUGH THE SHADOWLANDS

가제 : 그늘진 곳으로

(부제: 알려지지 않은 질병을 향한 어느 과학 저술가의 긴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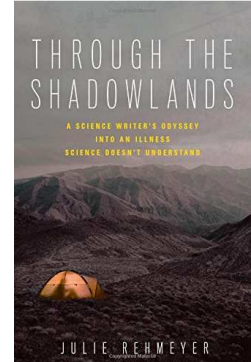
저자 : Julie Rehmeyer

출판사: Rodale Books

발행일: 2017년 5월 2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침울하지만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긴 저자의 이야기는 지적이고 과학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더라도 괜찮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정치색 짙은 과학 연구와 멀찍이 떨어진 대안의학으로, 분자를 요모조모 따지는 대신 날 것 그대로의 깊은 감정으로 향해 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의 저자 조앤 보리센코

누구보다 과학적인 사람이 머리 위에 자꾸만 떠오르는 물음표와 의혹을 안고도 비과학의 세계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보기 위해 그렇게 한 발씩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간 어느 과학 저술가의 힘겨운 여정이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회고록으로 완성됐다. 열네 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MIT에서 수학으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저자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낯선 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아야 했다. 「뉴욕타임스」, 「와이어드」와 같은 곳에 수많은 글을 기고하고 찬사를 받고 상까지 수상한데다 한때 마라톤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인적이 드문 벌판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수색대로 활약하고 직접 집까지 지어본 적이 있는 그녀지만 어느 날 덮친 이 드문 병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면역학자들이며 의사들을 찾아가서 만나봤지만 집중력이 똑 떨어지고 머리에 온통 안개가 낀 것처럼 사고 기능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몸이 마비되어 걸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누워 있어도 돌아 눕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의사들은 다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의학적으로 도와줄 방도는 없다고 하고, 돈도, 지원도, 달리 시도해 볼 대책도 다 사라져버리자 남은 건 깊은 절망뿐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인터넷을 이리저리 검색하던 저자는 살고 있는 집이며 평소 사용하고 소유한 모든 물건들로부터 벗어나서 지내보면 증상이 호전될 거라는 투병기를 접했다. 늘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주장에만 가치를 부여해왔지만,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저자는 안 하던 시

도를 해보기로 결심한다. 비과학적이고 어쩌면 ‘카더라’ 통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해본 것이다. 그렇게 깊은 산속 계곡에 들어가 2주간 자연 속에서 지낸 저자는 놀랍게도 정말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던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집에 돌아오자 수그러들던 증상이 다시 심해진 것 또한 놀라웠다. 희망을 엿본 저자는 특유의 과학적 탐구심과 저널리스트다운 조사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진정한 건강으로 향하는 길이 어디인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기존에 확고한 사실로 알려진 과학, 의학의 원칙과 고착되어 버린 ‘정통’ 치유법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과 자연, 그 둘 사이에 맺어진 가장 기본적인 유대와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자 생각지 못한, 혹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수백만 명이 고통 받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질병은 물론 홀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과 의학, 인간의 심리적 환경과 상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안겨줄 흥미로운 회고록이다.

<목차>

1부. 내리막

- 1장. 건설과 해체
- 2장. 불구가 되다
- 3장. 의사들
- 4장. 쪼개진 세상
- 5장. 처참한 붕괴
- 6장. 기적
- 7장. 나 홀로

2부. 고독

- 8장. 격분
- 9장. 삶, 한정된 그것
- 10장. 서커스
- 11장. 가능성이 희박한 가설

3부. 지구의 자궁 속으로 (12- 1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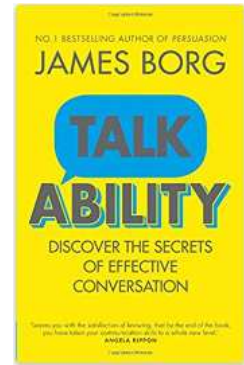
4부. 긴급상황 (17- 24장)

맺음말

<저자 소개>

줄리 레메어(Julie Rehmeyer)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와이어드」, 「슬레이트」, 「사이언스 뉴스」에 수학과 과학에 관한 글을 기고해온 저자로 현재 디스커버 매거진에서 편집을 맡고 있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Statistical Reporting Award’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목 : TALKABILITY
가제 : 말 잘하는 능력
저자 : James Borg
출판사: Pearson Business
발행일: 2016년 8월 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커뮤니케이션)



- * **“제임스 보그는 영리하고 통찰력 있는 언어의 마술사다. 작사 일에만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 오스카상 수상 작사가 돈 블랙
- * **“말하기가 삶의 필수 기술이자 문자메시지가 지배한 오늘날의 의사소통에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우쳐주는 책” - 「북셀러」 편집자, 필립 존스**
- *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완전히 새롭게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 TV, 라디오 방송인 앤젤라 리폰**

매일 사적으로나 업무 상으로 다른 사람과 하는 대화가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다른 단어를 택했다면,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다르게 설명했다면, 목소리 톤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아쉬워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은 대인관계는 물론 일, 사업,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하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체계 내에서는 대부분 일상 대화에서 말의 효과나 영향,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언어의 마술’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인 관용어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마술의 기법’을 터득하기란 쉽지가 않다. 국내에도 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설득력(Persuasion)』에서 심리학적 원리를 토대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읽어내는 기술을 소개했던 저자는 그 범위를 넓혀 말 ‘제대로’ 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하기뿐만 아니라 실수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전하려는 메시지, 생각을 적절히 전달하기 위한 마법 같은 기법들이 소개된다.

우연히 접한 노래 가사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줄 때가 있다. 누군가의 말 한 마디가 외면하거나 포기했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축 처져 있던 기분을 확 바꿔놓기도 하고, 헤어날 수 없던 끈질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때로는 미처 보지 못한 자신의 약점을 들여다보게 하는 회초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저자는 언어가 부리는 마술이란 거창한 성과나 결과를 거둬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소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상적인 환기, 변화를 이끄는 것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부적절한 언어 습관 때문에 배우자, 친구, 직장 상사

와 동료들, 고객들과 자꾸 갈등을 겪고 오해를 받는다면 단순히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과 자괴감이 동시에 덮쳐 절망감을 느끼고 삶 자체가 괴로워질 수 있다. 이메일, 휴대전화로 주고 받는 짧고 간결한 문자 메시지와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온갖 사진들, 그림, 이모티콘이 현대인의 주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시대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자 가장 귀중한 자산인 대화, 말하기의 기술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 의사소통의 기술을 저자의 오랜 현장 경험과 과학적 분석, 유쾌한 설명과 재미 있는 예시로 가르쳐주는 값진 정보서다.

<목차>

저자 소개 / 머리말 / 서문

1부. 말하기의 필수 요소

1. 시작하면서: ‘~ 할 때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2. 아이컨택, ‘iContact’인가 눈을 마주친다는 건가
3.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4. ‘비언어적 요소’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도 중요하다)
5. 말하기와 듣기의 ‘리듬’
6. ‘시작’과 ‘마무리’ (‘으뜸’ 효과와 ‘최신’ 효과)

2부. 제대로 말하자

7. ‘말 실수 했어’ (‘이제는 제발 ~ 했으면 좋겠어’)
8.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바꾸는 법
9. 쑥덕쑥덕
10. 눈 마주침의 규칙

(이하 생략, 총 5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제임스 보그(James Borg)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이후 광고, 영업, 마케팅, 저널리즘 분야에서 심리학자, 비즈니스 컨설턴트, 설득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 기억력 향상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해 왔다. ‘매직서클(영국에 설립된 유명한 마술사 조직)’에 최연소 회원으로 가입한 그는 마음의 마술이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왔다. 저서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Persuasion: the art of influencing people』과 『Body language: 7 easy lessons to master the silent language』 등이 있다.

제목 : AND BREATHE

가제 : 숨을 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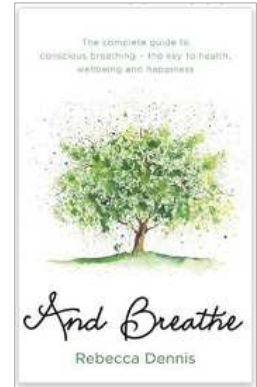
저자 : Rebecca Dennis

출판사: Orion Spring

발행일: 2016년 10월 20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건강



*** 20년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던 저자가 직접 효과를 깨달은 특별한 호흡법**

*** 생물학적 건강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는 호흡 기술을 알기 쉽게 설명한 건강서**

숨 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호흡은 특별히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터득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호흡은 우리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고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은 곧 세상과 하직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제대로’ 숨 쉬는 법을 몰라 몸과 마음이 병든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하루동안 대략 2만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않고 지금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몸을 굳게 하고 생각과 감정을 굳게 만든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감정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되도록 억누르고 감추면서 사는 습관을 익힌다. 복잡하고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적응하느라 익힌 이 서글픈 습관은 몸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호흡 패턴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호흡이 달라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스스로도 20년 넘는 세월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호흡법을 익히면서 그 오랜 문제에서 벗어나고 각종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찾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소개한다. 극도로 당황했을 때,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입버릇처럼 ‘자, 숨 쉬어. 심호흡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관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간 축적된 임상적,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한다.

요가, 마음챙김 명상을 포함한 여러 명상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호흡이다. 최근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도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기울이고 주목하는 단순한 변화만으로 심장 건강이 개선되고 신체 에너지가 증대된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굳이 숨쉬는 방법까지 따로 알아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호흡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퇴색되어 변형된 채로 그것이 원래 호흡하는 방법인양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숨소리를 내지 않고 되도록 얇게 호흡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몸 속 세포가 호흡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고스란히 안게 되고, 거기서부터 온갖 문제가 시작된다. 저자는 깊이, 충분히 호흡하는 방법과 연습법을 통해 불안한 감정과 자꾸 낮아지는 자존감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도

와준다. 더불어 건강에 해로운 호흡 방식을 바로 잡아 인체 호흡기가 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몸 구석구석에 쌓인 정서적 부담과 트라우마가 남긴 원치 않는 감정적 짐을 호흡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다양한 실제 사례와 사연들, 실용적인 연습 방법, 임상 연구 사례 등 이 포함된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의식적인 호흡

숨쉬기가 약이다

감정과 기분

마음과 몸

흘려 보내기

내 안의 아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

자연과 호흡하기

집으로

소리와 진동

영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호흡 운동

<저자 소개>

레베카 데니스(Rebecca Dennis)는 영국에서 잘 알려진 호흡 코치로 강의, 워크숍을 통해 호흡 기술을 전해 왔다. 스트레스, 불안, 중독, 우울증, 호흡 문제, 트라우마 등을 호흡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웹사이트 www.breathingtree.co.uk를 운영 중이다.

제목: FREUD: The Making of an Illusion

가제: 프로이트: 환상의 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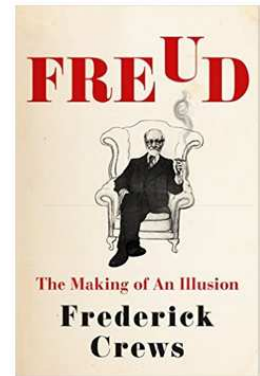
저자: Frederick Crews

출판사: Metropolitan Books

발행일: 2017년 8월 22일

분량: 768 페이지

장르: 심리학/역사



- * “치료에 관한 환상에 사로 잡혀 비틀대던 불안하고, 문제 많고, 그러면서도 야심 만만했던 의사에 관한 인상적인 이야기” - 『*Freud's Paranoid Quest*』의 저자 존 파렐
- * “인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통찰력도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아무도 치료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부풀린 명성을 얻었던 프로이트에 대해 알려주는 책” - 『*The Psychological Mystique*』의 저자 스튜어트 저스트먼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셰익스피어나 예수에 버금갈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학자들, 일반인들 모두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서구 사회 전체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발표한 심리 분석과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 자아를 들여다보고 인지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어놓았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이 전설 같은 명성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신격화되고 공공 감추어진 프로이트의 실체, 주변 사람들과 학계의 비판이나 진심 어린 충고를 모조리 무시하고 근거가 불분명한 이론과 자신만의 치료 방식을 고집스레 이어갔던 그의 놀라운 이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심리분석 이론과 프로이트에 관한 대표적인 비평가로 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환상과 포장에 휩싸인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그 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적인 자료와 조사에서 얻은 두툼한 근거를 토대로 프로이트의 놀라운 진짜 모습을 소개한다. 사실상 제대로 치료에 성공한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의사, 코카인을 온갖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홍보했던 사람, 명성을 얻기 위해 치료 사례를 조작했던 학자, 진심으로 도와주려던 멘토를 배신한 프로이트의 실체와 더불어, 저자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남긴 그의 엄청난 영향을 재평가한다.

프로이트가 남긴 성과나 업적이 처음 알려진 그대로 견실하고 근거가 탄탄하다면, 그가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평가에 반론을 제기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적인 수치만 봐도 그 명성이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1997년에 발표된 과학계의 연구결과 중 인지능력과 감정에 관한 주제를 다룬 1,314건의 연구에서 프로이트의 연구가 인용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1999년에는 미국 심리학회지가 심리분석 이론의 인용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주류 심리학계에서 거의 무시되어 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향세에 접어든 프로이트의 심리분석 이론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심리분석의 과학적 원리와 치료 효과는 시대 착오적인 생물학적 원칙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난

을 들었다. 저자는 한때 심리학계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프로이트의 명성이 왜 거대한 거품에 불과한지 이 책에서 조목조목 따져본다. 최근 발견된 그의 서신들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프로이트의 성격과 이기심, 경쟁심, 성공을 위해 지름길을 택한 일, 취약점을 집어내고 솔한 수정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비논리적인 성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부풀려지고 과장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그가 밝힌 생각, 결론의 대부분이 그저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프로이트 학설을 비판한 흥미로운 전기이자 심리학 역사서이다.

<목차>

1부. 지그문트, 준비되지 않은 자

2부. 첫 번째 유혹

3부. 눈먼 굴복

4부. 의사를 연기하다

5부. 환한 조명을 받다

6부. 깊은 나락으로

7부. 작지만 대단한 사람

부록: 왜 프로이트 학설이 아직도 건재한가?

<저자 소개>

프레데릭 크루스(Frederick Crews)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문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The Pooh Perplex』, 『Postmodern Pooh』와 미국 비평가협회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 결선 후보로 선정된 『Follies of the Wise』 등을 쓴 저술가이다. 뉴욕타임스 북 리뷰에 오랜 세월 글을 기고해왔으며, 프로이트와 심리분석에 관한 대표적인 비평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제목 : RESULTS AT THE TOP

가제 : 정상의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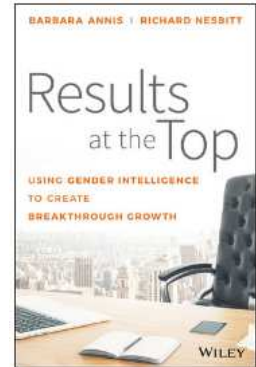
저자 : Barbara Annis, Richard Nesbitt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6월 6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 * “이 책에 소개된 남성 리더들은 양성 평등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를 만든 사람들이다.” – 포시즌 호텔 앤 리조트 전 대표, 캐슬린 테일러
- * “두 저자는 오늘날 업계의 조직과 절차, 정책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편향에 초점을 맞춘다. 놀라운 발견, 상식적인 해결 방안은 산업계에 제대로 변화를 일으키려는 모든 리더들이 꼭 읽어야 하는 내용이다.” – 크레디트 스위트(**Credit Suisse Group AG**) 법률준수관리 팀장 라라 와너

회사 조직에서 관리직에 해당하는 상급직위에 더 많은 여성들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이 늘어난다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난 30년간 진행된 수많은 연구와 조사에서 여성 리더의 업무 능력이 더 월등하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산업계에서 경영진, 관리직에 앉은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아주 낮은 실정이다. 왜 이런 모순이 존재할까? 『직장에서 만난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저자를 포함한 두 명의 저자는 이 책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고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보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성별 이해지능’을 이야기한다. 일터에서 이 성별 이해지능을 높이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극심한 경쟁 속에서 놀라운 우위를 점하고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큰 성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두 저자의 설명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평등이 곧 모든 면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성별 이해지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신경학적인 차이와 더불어 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는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기보다 생산성과 이윤의 관점에서 한쪽의 결핍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두 저자는 실제로 여성을 리더의 자리로 배정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져오는지 체득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업계 전체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확인된 놀라운 사례들과 더불어 두 저자는 현재 각 업체가 관리직, 즉 리더의 자리에 남녀를 얼마나 다양하게 분비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을 알려준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개개인의 이익보다 조직 전체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이끄는 방법과 남성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공 전략도 소개한다.

조직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녀 구성원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두

저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업계와 정부 기관에서 여성의 참여가 늘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야말로 21세기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고 단언하고, 남성과 여성이 각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타고난 능력을 적극 발휘하도록 이끌어 조직 전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목차>

머리말

- 1장. 다급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일
- 2장. 여성의 발전에 관한 산업계 사례
- 3장. 신경과학의 상승세
- 4장. 여성의 상승세
- 5장. 남성의 상승세
- 6장. 밀레니엄 세대: 사실과 허위
- 7장. 효과가 있는 것, 그리고 소용 없는 것
- 8장. 위원회의 역할
- 9장. 공헌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 10장. 꼭 막힌 편견을 없애려면
- 11장. 미래에 기다리는 것

<저자 소개>

바바라 애니스(Barbara Annis)는 ‘젠더 인텔리전스 그룹(Gender Intelligence Group)’의 공동 파트너이다. 저서로는 『Same Words』와 공저자로 참여한 『Gender Intelligence』, 『Work With Me』 등이 있다.

리처드 네스빗(Richard Nesbitt)은 ‘글로벌 리스크 연구소(Global Risk Institute)’의 CEO 겸 대표이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경영대학원 부교수이다.

제목 : HELPING YOUR ANGRY TEEN

가제 : 성년 10대, 도움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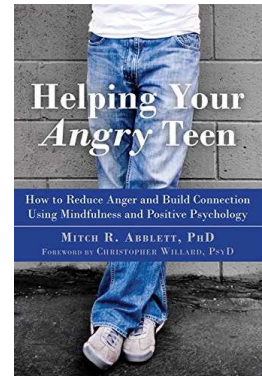
저자 : Mitch R. Abblett

출판사: New Harbinger Publications

발행일: 2017년 5월 1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양육/교육



- * “잘못 해석되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기 쉬운 **10대**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분노의 먹구름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고 우리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음챙김 명상의 깊은 지혜를 전하는 책.” –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교수, 임상 심리학자 스티븐. **D.** 혁먼
- * “알기 쉽게 쓰인 현실적인 가이드. 방황하는 청소년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책이다.” – 『**Mindful Parenting for ADHD**』의 저자, 발달소아학 박사 마틴 버턴

혼자만의 공간에 틀어박혀 있다가 밥 먹을 때, 돈이 필요할 때만 나오는 아이들. 그냥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고함을 댄 질러버리는 아이들. 집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파괴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 아이들. 남들과 싸우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물건을 부수고, ‘질 나쁜’ 무리와 어울려 다니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한 마디도 하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 모두 인생의 반항기라는 10대 아이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른들은 다 똑같이 10대 시절을 거쳤건만 새로운 10대들의 이러한 행동과 마주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워 한다. 웃으면서 이야기해보려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분노하는 아이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화가 끓어올라 벌벌 떨기도 한다. 아무리 질풍노도의 시기라지만, 왜 10대 아이들은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낼까? 모든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런 아이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답답함보다는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다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자녀와 등을 지는 일만큼 부모가 원치 않는 일도 없을 테지만, 십대 아이들을 키우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오랫동안 아동과 청소년 전문 심리분석가로 일해온 저자는 직접 만나서 상담해온 수많은 10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챙김 명상의 원리를 심분 활용하여 이 까다로운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순간, 그 부정적인 열기를 식히고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 아끼고 도와주려는 연민의 감정을 떠올려 더욱 탄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팁을 배울 수 있다.

말썽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 10대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은 병원이나 상담 시설을 찾기도 하고,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온갖 프로그램과 약물까지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저자는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이러한 외적인 수단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지하고, 부모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자녀와 끊어진 감정의 끈을 다시 연결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가 개발한 4단계 마음챙김 커뮤니케이션 기술인 'PURE'를 통해 현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아이와 자기 자신에게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는 것이 PURE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는 대화가 가장 갈등이 고조된 순간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놀라운 방법이 상세히 소개된다.

아이를 제어하는 것보다 갈등 상황에 놓인 부모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여 더 큰 불화를 피하고 모두가 행복한 관계를 맺는 길을 보여주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양육서다.

<목차>

머리말

1. 분노하는 10대: 문제와 해결책
 2. 현재에 집중하라: 화를 다스리는 마음챙김 기술
 3. 이해하라: 10대의 분노 패턴을 분명하게 파악하자
 4. 성난 10대 키우기, 반응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5.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의 힘
- 결론. PURE 기법을 활용한 단합과 협력의 길

<저자 소개>

밋치 R. 애블렛(Mitch R. Abblett)은 임상 심리학자로 아동 청소년의 감정, 행동, 학습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일 학교 '맨스빌 스쿨(Manville School)'에서 임상부 대표를 맡고 있다. 개인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음챙김 명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